"44.2%"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끌어올린 '아빠파워'

천호진, 서태수 이야기 가슴 먹먹하게 그려
전노민, 자식 지키기 위한 울분 시청자 감동

KBS2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아빠 파워'에 힘입어 시청률 상승세를 보였다.

'황금빛 내 인생'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20%대를, 방송 8회 만에 시청률 30%대를 넘기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는 신혜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신혜선은 흙수저의 비애를 절절하게 그려내는 한편, 갖은 고난에도 기죽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여기에 최도경 역의 박시후와 애절한 러브라인까지 만들어내며 시청률 상승에 1등 공신이 됐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드라마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힘을 보탠 건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의 두 아빠; 천호진과 전노민이다.

먼저 천호진은 바람잘 날 없는 서태수의 이야기를 가슴 먹먹하게 그려냈다.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서지태(이태성)에게 사업 실패 이후 힘들었던 속사정을 고백하고 "너희들 애비여서 참 미안했다"고 토로하는 모습(30회), 서지안(신혜선)과 서지수(서지수)의 반목과 반항까지 더해지며 가족 중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다는 외로움에 상상암 까지 걸리는 모습(38회)은 시청자의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든 순간. 이에 서태수의 피나는 고백이 담긴 30회는 41.2%(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 고지를 넘어섰다.

또 상상암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긴 38회도 43.2%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데 성공했다.

전노민도 가세했다. 28일 방송된 '황금빛 내 인생'은 천호진과 전노민의 애끓는 부성애 컬래버레이션이 펼쳐진 회였다. 이날 방송에서 선우혁(이태환)은 최도경과 서지안의 도움으로 강제 유학길에 오른 서지수를 구해냈다. 노명희(나영희)는 크게 분노했지만 서지수는 선우혁 최도경 서지안이 살고 있는 셰어하우스에 머무르기로 했다.

서지수의 경로 이탈에 분노한 노회장(김병기)은 서태수(천호진)를 찾아가 최도경과 서지안의 사이를 밝히며 "서지안이 심하게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딸 자식 단속해라. 내 손에 피 묻히기 전에"라고 협박했다. 서태수는 딸을 믿는다고 맞섰다. 노회장은 "남자 다루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다"라며 서지안을 요물 취급했고, 급기야 서태수의 뺨까지 때렸다. 하지만 서태수는 물러서지 않고 서지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다. 어떠한 협박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 무는 천호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짠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전노민의 진가가 발휘되며 '황금빛 내 인생'은 지난 몇 회 차의 고구마를 씻어내릴 수 있었다. 최재성(전노민)은 서지안과 최도경의 진심 어린 부탁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고집을 세우는 노명희의 모습에 실망했다.

또 노명희가 서지수에게 유학을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라고 협박한 사실까지 알게 되며 당황했다. 그러던 중 "최은석이 아닌 서지수로 살고 싶다"는 서지수의 애원까지 듣자 칼을 빼 들었다. 그는 노명희에게 "그래서 바람 피우러 가다 딸을 잃어버렸냐"고 과거의 사건을 폭로했다.

사실 노명희가 진짜 불륜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해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노린 노진희(전수경)의 이간질에 의한 오해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어쨌든 오랜 세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랑으로 과거를 덮고 살아온 최재성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울분을 터트리는 모습은 시청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두 아버지의 부성애에 힘입어 '황금빛 내 인생'은 또 한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된 '황금빛 내 인생'은 무려 44.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7일 방송분(38.8%)보다 5.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종전의 자체 최고 기록(43.2%)도 넘어선 기록이다. 신혜선에 이어 천호진과 전노민까지 일어나며 '황금빛 내 인생'은 제대로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낼 사이다 반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황금빛 내 인생'이 '꿈의 영역'이라 불리는 시청률 45%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월 극장 대첩…다양한 韓영화들 vs 마블 '블랙팬서'

31일 '염력' 개봉을 시작으로 2월 영화 대전이 펼쳐진다. 15일부터 이어지는 설연휴를 전후로 여러 기대작들이 포진했다. 2월은 3월부터 본격적인 비수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관객이 몰리는 시즌. 설연휴를 앞뒤로 줄줄이 선보이는 영화들을 짚었다.

31일 개봉하는 '염력'은 1156만 명을 동원한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어느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아빠가 철거 용역들과 싸우고 있는 딸을 10년만에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류승룡과 심은경이 주연을 맡았다. '염력'은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개봉하면서 2월 본격적인 영화 대전의 막을 연다.

바톤을 이어 받을 영화는 설 극장가에서 늘 흥행몰이를 해온 '조선명탐정' 시리즈 3탄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이다. '조선명탐정'은 1편이 2011년 설 시즌에 개봉해 478만명을, 2편이 2015년 387만 명을 동원했다. 쇼박스는 설연휴 일주일 앞서 '조선명탐정3'를 개봉하면서 설 극장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설연휴 직전인 2월14일이 워낙 격전지인 까닭도 있다. 2월14일에는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블랙팬서'와 강동원 주연 '골든 슬럼버', 정우와 고 김주혁의 유작 '흥부' 세 편이 나란히 개봉한다. 디즈니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메이저들의 격전지가 된 셈이다.

'블랙팬서'는 '시빌워' 이후 와칸다 왕위를 계승한 티찰라가 와칸다에만 존재하는 희귀 금속 비브라늄과 왕좌를 노리는 숙적들의 음모에 맞서 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블랙팬서'는 4월 말 개봉하는 마블 최고 기대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전초전격이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블랙팬서'에 맞서는 '골든슬럼버'는 일본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대통령 후보 암살 범인으로 몰린 택배기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강동원이 주연이다. '흥부'는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가 어릴 적 흥경래의 난으로 헤어진 형 놀부를 찾기 위해 전혀 다른 형제 이야기를 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사극이다. 정우와 고 김주혁 등이 출연했다.

설 격전지에서 살아남은 영화들은 2월 막바지에도 신작들과 맞붙는다. 김태리 주연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임창정 주연 '게이트', 이승기 심은경 주연 '궁합'이 2월 말 관객과 만난다.

임순례 감독이 연출하는 '리틀 포레스트'는 취업도 공부도 연애도 제대로 안되는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게이트'는 신재호로 개명한 신동엽 감독의 신작. 변두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한탕을 그린 코믹영화지만 최순실게이트에서 모티프를 따왔다는 점에서 더 유명세를 얻었다. '궁합'은 혼례를 앞둔 공주가 운명의 상대를 직접 만나려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이승기가 입대 전 찍어 제대한 뒤 개봉한다. 코믹 로맨스 사극이란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올 설 극장가는 다양한 색깔의 한국영화들과 막강 마블 슈퍼히어로물의 대결이다. 스릴러와 코미디, 힐링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영화들이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와 대결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H.O.T 뭉친다…내달 15일 '무한도전-토토가3' 공연

1~7일 방청 신청…17 · 24일 설날특집으로 방송

'1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 H.O.T 전원이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17년 만에 다시 뭉친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는 2월 15일 일산 MBC드림센터 공개홀에서 H.O.T와 '토토가3'(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3) 특집 무대를 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우리는 2014년 11월 '토토가' 특집을 준비하면서 H.O.T 멤버들을 처음 만났고, 2015년 10월에는 '토토가2' 특집 출연을 위한 논의를, 2016년 가을부터는 '토토가3' 기획을 위한 논의를 멤버 전원과 진행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은 1996년 데뷔한 H.O.T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기에 다섯 명이 무대에 함께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쉽게 풀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결국 무대에 서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고 쉽지 않았던 재결합 과정도 전했다.

제작진은 "그러다 최근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의논했고, '오직 다섯 멤버와 팬들만을 생각하며 무대에 서자는 한마음으로 특집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또 H.O.T가 '시청자들의 추억여행'을 위해 열심히 안무연습을 하고 있으며, 제작진도 최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경기 중계로 방송 시간 변경과 결방이 예정돼 있다.

제작진은 "2월 17일과 24일 밤, 지금의 본방송 시간과 다른 편성 시간에 '무한도전'의 스핀오프 개념으로 설날특집 '토토가3-H.O.T' 편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한도전-토토가3' 방청 신청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코코' 흥행질주, 출판 · 음반계도 들썩

디즈니 픽사의 '코코'가 255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꽃길을 걷고 있다.

29일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코코'는 개봉 3주차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2위 및 누적 관객수 255만 6,317명을 돌파했다.

지난 주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서 2위로 다시 역상승하며 개봉 3주 연속 흥행 역주행의 아이콘의 저력을 다시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3주 연속 좌석 점유율에서 동시기 개봉작 중 최상위를 기록하며 1월 극장가를 내내 '코코' 열풍을 이끌고 있다.

'코코'는 조만간 지난해 2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도리를 찾아서'를 누르고 '인사이드 아웃'(2015)의 뒤를 이어 역대 디즈니·픽사 최고 흥행작 등극까지 수일 내 오를 전망이다.

5년 연속 디즈니의 겨울 흥행 불패 신화를 완벽하게 이뤄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2014년 '겨울왕국', 2015년 '빅 히어로', 2016년 '주토피아', 2017년 '모아나'까지 4편에 걸쳐 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같이 '코코'의 극장가 흥행 돌풍에 힘입어 출판 및 음반계에서도 '코코'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코코' 애니메이션 북 등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으며, 영화의 OST '기억해 줘' 등이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황홀하고 기묘한 모험을 그린 디즈니·픽사 작품이다.

뉴시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음력 12월 14일)

▶쥐띠 그동안 허황함을 느끼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서히 마음의 답답함이 끌려 나중에는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겠다.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안정을 취하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상이다. 새롭게 변동할 듯.

▶소띠 지금은 현상유지에 만족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지 말라.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사업적인 면은 순조롭겠다. 다른 사람까지 마음 상하지 않을지 생각하라. 3, 5, 9월생은 애정으로 갈등이 있겠으니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랑이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기를 때 비로소 좋은 일을 맞게 된다. ㅇ, ㅂ, ㅁ 성씨는 갚을 것이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갚으라. 큰 화가 오겠다.

▶토끼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앞서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리라. 얼마 동안이라도 살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심하라. 3, 5, 7월생 승부를 가리는 것은 미련한 자의 투기심임을 알고 행하지 말라.

▶용띠 남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도 진실하지 못 하다는 증거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남에게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은 속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냉가슴 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줄 것도 생각하라.

▶뱀띠 마음이 급하겠으나 느긋한 자세로 참고 노력하라.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각오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린다. 사람을 너무 믿는다든지, 자존심을 지나치게 세운다든지 하면 본인만 계속 비참해진다. 마음을 다스리며 잠시 근신함이 좋을 듯.

▶말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낼 정도로 대단한 끈기도 있지만, 좌절할 때도 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 반드시 즐거운 삶의 행운이 올 것이다. 2, 8, 11월생 인내하라.

▶양띠 실속은 없으면서 소문만 거창하다. 배우는 자세로 겸문을 넓히고, 내실을 기하라. 애정으로는 연상이나 연하 상대의 유혹이 많아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배필 아닌 배필로 신음하고 있구나.

▶원숭이띠 지금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반복했지만, 차차 운이 열리니 계획한 바를 조금씩 성취할 수 있다. 부채가 여럿 있으면 연장자 것부터 갚아야 인정도 받고, 관재도 면하게 되며 운이 풀린다.

▶닭띠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하니 권위도 높아지고 경사도 있겠다. 현명한 판단으로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4, 7, 9월생 애정도 포근하게 감싸주고, 신경도 써주면서 너그럽게 이해할 때 좋은 소식 들린다

▶개띠 자녀가 많아야 문제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리다 방심하지 말고, 관심을 두며 자주 대화하고 정을 쏟으라. 사업은 금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고, 적은 것을 이용해 큰 것을 얻으라.

▶돼지띠 어수선한 일들은 정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함이 현명한 방법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마저 놓친다. 3, 7, 9월생 하나도 아니고 무질서한 이성 교제는 새 옷을 입은 채 비를 맞는 격이다.